

The Effects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Negative Urgency on Reactive Aggressi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ttentional Bias

Sungwon Park Suhnyoung Jun Soo Hy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ttentional bias via negative urg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reactive aggression. A total of 126 Korean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and a dot probe task to measure attentional bias towards threatening faces: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RPQ), and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bootstrapping indicated that negative urgen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reactive aggression. Second, the moderation effect of attentional bi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reactive aggression was discovered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lope analyses. Finally, attentional bias also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on reactive aggression through negative urgenc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reactive aggression, negative urgency, attentional bias

공격적 성향은 심혈관계질환 또는 만성통증과 같은 신체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Kim, 2000; Lacey, McPherson, Samuel, Sears, & Head, 2013) 경계선 및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 다양한 성격장애와도 연관성이 있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주관적 안녕감의 저하, 우울 및 불안 양상과도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Lacey, McPherson, Samuel, Sears, & Head, 2013; Park & Kim, 2014; Seo,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격성이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공격성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련의 폭력적 사건들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Institute of Medicine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Oh & Lim, 2016; Sung,

Choi, & Lee, 2012). 이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을 제 공하기 위해 공격성의 명확한 원인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는 행동(Ander son & Bushman, 2002)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분류되고 있다(e.g., Crapanzano, Frick, & Terranova, 2010; Dodge & Coie, 1987; Yeo, Ang, Loh, Fu, & Karre, 2011). 그 중 Dodge와 Coie (1987)는 공격성을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분류 하였는데, 주도적 공격성은 목적달성, 특권 등 이득을 얻기 위한 목 표지향적 공격행동으로 타인을 수단시하고 죄책감 및 공감에 결여 되어 있는 특성과 관련이 깊다. 반면에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 협이나 도발에 대한 적대적 반응 및 분노 반응과 같은 내적 요인과 관련이 깊으며 충동성, 사회기술 및 정서조절능력 부족 등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Dodge & Coie, 1987; Gardner, Archer, & Jack son, 2012). 특히 반응적 공격성은 경계선 성격 특성과 연관성이 있 음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e.g., de Barros & de Pádua Serafim, 2008; Gardner, Archer, & Jackson, 2012; McCloskey et al., 2009; New et al., 2009; Ross & Babcock, 2009).

[†]Correspondence to Soo Hy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parksoohyun@yonsei.ac.kr

Received Dec 13, 2016; Accepted Feb 7, 201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Yonsei University Future-Leading Research Initiative of 2015 (2016-22-0042).

경계선 성격장애는 변덕스럽고 극적인 특성을 보이는 DSM-5의 B군 성격장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자아상과 대인관계, 정동의 불안정성, 현저한 충동성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임상 집단과 비임상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상황에서 허구의 상대에 대한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으며(McCloskey et al., 2009; New et al., 2009), 이들의 공격성이 정서조절 곤란, 충동성, 강한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어 반응적 공격성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Gardner, Archer, & Jackson, 2012).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경계선 성격장애와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는데, 한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반응적 공격성을 주도적 공격성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Ross & Babcock, 2009).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문제행동 혹은 위법행위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행위가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기 보다는 충동적이고 신체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de Barros & de Pádua Serafim, 2008).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Widiger & Trull, 2007)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양상은 경계선 성격특성이라는 연속체에서 가장 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비임상 집단에서 나타나는 높은 경계선 성격 성향은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에서 나타나는 증상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질적으로 유사하며, 우울, 불안, 정서조절 곤란,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등과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Fonseca-Pedreiro et al., 2011; Gardner & Qualter, 2009; Korfine & Hooley, 2009). 이 같은 성격 장애에 대한 차원적 접근에 더하여 경계선 성격장애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빈번하게 발병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임상 수준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경계선 성격 성향을 보이는 초기 성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Hong & Kim, 1998; Hur & Rhee, 2015).

경계선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충동성이다. 충동성은 DSM-5 (APA, 2013)에 포함된 여러 정신병리 및 다양한 외현화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Lim & Lee, 2014),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 진단 기준에 포함될 정도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APA, 2013). 충동성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되었는데(e.g., Depue & Collins, 1999; Dickman, 1990), 특히 부정 긴급성은 부정적 감정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말하며(Cyder et al., 2007), 경계선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

졌다. Paris (1997)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충동적 행동이 불쾌한 정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여, 부정 긴급성과 경계선 성격장애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충동성 및 공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임상집단과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반사회적 성격장애 집단은 더 높은 긍정 긴급성을 보이는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은 더 높은 부정 긴급성 수준을 보였으며(Taherifard, Abolghasemi, & Hajloo, 2015), 임상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역시 부정 긴급성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DeShong & Kurtz, 2013).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은 부정 긴급성 개념과 경계선 성격 성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충동성과 더불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과도 부정 긴급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Hecht, & Latzman, 2015; Scott, DiLillo, Maldonado, & Watkins, 2015; Settles et al., 2012).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군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의 심각도와 충동성이 반응적 공격성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충동성과 공격성이 서로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었다(Kogan-Goloborodko, Brüggmann, Repple, Habel, & Clemens, 2016).

Blair (2012)에 따르면 위협적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반응적 공격성의 상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위협 과민감성(threat hypersensitivity)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Mancke, Herpertz, & Bertsch, 2015).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 집단 혹은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비임상 집단에서 나타나는 반응적 공격성은 위협 과민감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군을 대상으로 위협 과민감성을 확인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표정 자극을 활용하였으며(Mancke, Herpertz, & Bertsch, 2015), 연구결과 비임상 집단에 비해 중립 표정에 대해 공포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애매한 표정자극에 대해 분노로 더 많이 인식하였고, 부정적인 표정 자극에 대한 초기 주의편향이 나타났다(Domes et al., 2008; von Ceumern-Lindenstjerna et al., 2010; Wagner, & Linehan, 1999). 그 중 주의편향은 다양한 자극 중에 특정 자극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할당하는 경향성(Staugaard, 2010)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관련 연구 외에도 사회불안장애, 아동기 학대 피해자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Fontenot, Jackson, & Terry, 2015; Musa, Lépine, Clark, Mansell, & Ehlers, 2003; Pineles, & Mineka, 2005). 특히, 최근 들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 공격성과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관련성 역시 연구되고 있다. 폭력성이 높은 대상자들로부터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확인한 연구들(Chan, Raine, & Lee, 2010; Smith & Waterman, 2004)과 공격적 단어 자극에 대한 더 강한 주의편향이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한 연구(Brugman et al., 2015)는 공격성과 주의편향의 관련성을 시사하며, 특히 Brugman 등(2015)은 위협적 단어에 의해 정서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자극에 의해 촉진 되었을 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격성과 관련한 주의편향 연구는 대부분 위협적 단어를 사용한 스트룹 과제가 대부분이었다(Brugman et al., 2015; Chan, Raine, & Lee, 2010; Smith & Waterman, 2004). 그러나 단어 자극의 경우 사회적 신호의 간접적인 표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지적되기도 한다(Amir & Foa, 2001).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단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대부분이 타인과 신체적 다툼의 경험, 타인에 대한 무기 사용 혹은 공격적 행동을 보고하였으며(Newhill, Eack, & Mulvey, 2009; Soloff et al., 2003), 비임상 집단의 경계선 성격 성향 역시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는 등(Hines, 2008; Whisman & Schonbrun, 2009),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 및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보이는 공격성이 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 자극 보다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실제 대인관계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하여 얼굴 표정자극을 사용하여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측정하였다.

요약하자면, 선행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경계선 성격성향과 충동성, 공격성, 주의편향 등 각각의 관련성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으나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계선 성격 성향을 지닌 사람이 부정적인 정서적 자극을 받으면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그에 더하여 위협적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편향 수준이 높을 때, 즉 위협 과민감성이 높을 때, 그러한 충동성이 공격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하여 변인 간

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 부정 긴급성이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매개모형).
2.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이 조절할 것이다(조절모형).
3.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 긴급성을 매개로 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주의편향이 조절할 것이다(조절된 매개모형).

방법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한국어가 모국어인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총 13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5명의 자료 및 외국인 1명의 자료를 제외한 12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 중 남성은 59명(46.8%), 여성은 67명(53.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83세(SD=1.91)이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의 동의를 얻은 뒤 연구를 실시하였다. A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 참가자에게는 A 대학교 심리학 관련 수업에서 요구되는 실험 크레딧 1크레딧을, A 대학교의 학부생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광고를 보고 연구에 참가 한 참가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례로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참가자의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수준, 부정 긴급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와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얼굴자극 탐침 탐사과제를 시행하였다.

경계선 성격 성향

경계선 성격 성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orey (1991)가 개발하고, Hong과 Kim (199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0) - 매우 그렇다(3)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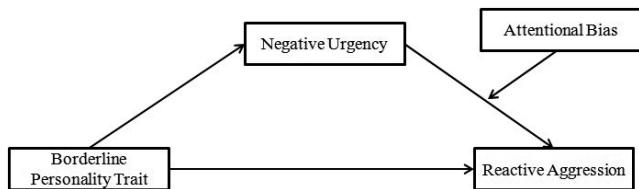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반응적 공격성

Raine 등(2006)이 개발한 반응적-주도적 공격성 질문지(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RPQ)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h (2010)가 번안한 것을 Lee (2015)가 대학생 집단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두 가지 하위요인인 반응적 공격성 11문항, 주도적 공격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에 반응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1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분석에 사용된 하위 요인인 반응적 공격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부정 긴급성

부정 긴급성을 측정하기 위해 Cyder 등(2007)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Lim과 Lee (201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를 사용하였다. UPPS-P (Cyder et al., 2007)는 Whiteside와 Lynam (2001)이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8개의 자기보고식 충동성 척도와 성격 5요인 척도(NEO-PI-R)를 요인분석하여 개발한 충동성 척도 UPPS에 Cyder 등(2007)이 긍정 긴급성 요인을 추가한 새로운 충동성 척도로 충동성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Lim & Lee, 2014). 총 59문항이며 1(매우 동의함) - 4(매우 동의하지 않음)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부정 긴급성 12문항, 긍정 긴급성 14문항, 계획성 부족 11문항, 지속성 부족 12문항, 감각 추구 10문항 등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감각 추구는 새롭거나 흥분되는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성, 계획성 부족은 행동의 결과를 숙고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성, 지속성 부족은 지루하거나 어려운 과제에 주의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향성, 부정 긴급성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 긍정 긴급성은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성급하게 혹은 부적응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을 말한다(Cyder et al., 2007; Lim &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부정 긴급성을 측정하는 12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부정 긴급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본 연구에서는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Ma-

cLeod 등(1986)이 고안한 단어자극 탐침 탐사과제를 참고로 하여 얼굴자극 탐침 탐사과제(dot probe task)를 구성하였다. 탐침 탐사과제는 Posner, Cohen과 Rafal (1982)의 위치 단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발전되었으며, 참가자가 주의를 할당하고 있는 위치에 탐침이 제시될 경우, 주의를 할당하지 않고 있던 위치에 탐침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반응시간이 빠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탐침 탐사과제를 이용하여 주의편향을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극제시 시간을 100 ms, 500 ms, 1,250 ms, 1,500 ms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였다(Shin & Hyun, 2007). 그 중 500 ms의 자극제시 시간은 자극에 대한 최초의 지향탐지를 반영하며, 위협에 대한 경계가 상승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Mogg, Philippot, & Bradley, 2004; Seefeldt, Kramer, Tuschen-Caffier, & Heinrichs, 2014; Shin & Hyun, 2007).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초기 주의편향을 측정하였던 von Ceumern-Lindenstjerna 등(2010)의 연구에서 역시 자극제시시간을 500 ms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비임상 집단에 비해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에서 부정적 표정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탐침탐사과제에서의 자극 제시시간을 500 ms으로 설정하였다.

사진자극

본 연구에서는 얼굴표정 데이터 베이스인 Korea University Facial Expression Collection(KUFEC; Lee, Lee, Lee, Choi, & Kim, 2006)에 포함된 표정 자극 중 분노 표정 및 중립 표정을 사용하였다. 총 49명(남자 24명, 여자 25명)의 얼굴 중 표정 평정을 통해 남, 여 각각 12명씩을 선택하여 본 시행에 사용하였으며, 본 시행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 중 8명의 중립 표정을 연습시행에 사용하였다. 1차 표정 평정에서는 KUFEC에 포함된 표정들의 정서 유형을 평정하게 하였다. 심리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조교 18명의 평정자 중 전체 응답률이 30%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11명의 평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노 표정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2차 표정 평정에서는 분노 표정 및 중립 표정의 위협정도를 1-8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심리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조교 16명이 평정에 참가하였다. 1차 평정에서 분노 표정의 일치율이 70%를 넘는 표정 중 2차 평정에서 분노 표정과 중립 표정의 위협정도의 차이가 큰 사람 남, 여 각각 상위 12명을 선택하였다. 선정된 분노 표정 자극의 위협정도는 평균 5.04 (SD=1.23), 중립 표정 자극의 위협정도는 평균 1.82 (SD=0.89)로 나타났으며, 두 표정 자극의 위협 정도의 차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위협 정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t(15)=12.30, p<.000$)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측정하려

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탐침 탐사과제는 MATLAB R2012b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자극은 17인치 모니터(TGL170C)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화면에서 약 60 cm의 거리에 위치하여 모니터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으며, 키보드를 통해 반응하였다.

절차

참가자에게 과제의 절차를 설명한 후, 연습시행 8회, 본 시행 72회가 실시되었다. 연습시행에 제시되는 표정 자극은 모두 중립표정으로 본 시행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얼굴을 제시하였다. 본 시행 72회 중 48회는 위협표정-중립표정 쌍의 시행으로 24회는 위협표정이 제시된 자리에 탐침이 나타나는 일치 조건이었으며, 나머지 24회는 중립표정이 제시된 자리에 탐침이 나타나는 불일치 조건이었다. 본 시행에는 중립 표정-중립 표정 쌍의 필러 시행이 24회도 포함되었으며, 이는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

참가자가 준비가 되면 스스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여 시작되었으며, 처음에 ‘+’ 모양의 응시점(20 mm × 20 mm)이 중앙에 500 ms 동안 제시된다. 응시점이 사라진 후 표정 자극(50 mm × 65 mm)의 쌍이 좌우로 500 ms 동안 제시된다(Mogg, Holmes, Garner, & Bradley, 2008). 연구 참가자가 60 cm 거리에서 실험에 응할 경우 두 사진의 중심 간 시야각은 약 3° 정도이다(Yoon & Kwon, 2013). 표정 자극 쌍이 사라진 직후 표정 자극이 제시된 위치 중 한 곳에 화살표 모양의 탐침(3 mm × 5 mm)이 제시된다. 이때 참가자는 화살표의 방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판단하여, 위쪽일 경우 키보드의 ‘z’ 키를, 아래쪽일 경우 키보드의 ‘/’ 키를 눌러 반응하게 되며, 참가자가 키보드를 누른 순간의 반응시간이 기록되었다.

주의편향의 해석을 위해 반응시간을 활용하여 주의편향 점수를 산출하였다(MacLeod & Mathews, 1988). 주의편향 점수는 위협자극의 위치와 탐침의 위치가 불일치한 반응시간에서 위협자극의 위치와 탐침의 위치가 일치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text{주의편향 점수} = \{(\text{erdI} - \text{eldI}) + (\text{eldr} - \text{erdr})\} / 2$$

(e = 위협자극, d = 탐침, r = 오른쪽 제시, l = 왼쪽 제시)

주의편향 점수가 양수인 경우, 위협자극의 위치와 탐침의 위치가 일치했을 때의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인 경우에는 위협자극의 위치와 탐침의 위치가 불일치했을 때의 반응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위협적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편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위협적 자극에 대한 회피적 주의편향이 있다고 해석한다(Yoon & Kwon, 201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과 Hayes (2014)가 개발한 PROCESS macro for SPSS v2.1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에서 부정 긴급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에서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 및 조절모형을 검증한 후,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 성향 및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의편향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각의 성차는 Ta-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Negative Urgency, Attentional Bias, and Reactive Aggression across Gender

Variable	Total (N = 126)	Male (n = 59)	Female (n = 67)	t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22.40 (9.81)	19.97 (9.01)	24.54 (10.05)	-2.674**
Negative urgency	27.29 (5.94)	25.86 (5.64)	28.54 (5.95)	-2.578*
Attentional bias	5.94 (29.76)	9.27 (28.22)	3.00 (30.96)	1.180
Reactive aggression	29.67 (6.79)	28.95 (6.47)	30.31 (7.05)	-1.127

Not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Negative urgency =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Reactive aggression =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p < .05. **p < .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1.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		
2. Negative urgency	.713**	-	
3. Attentional bias	-.119	-.076	-
4. Reactive aggression	.475**	.558**	.058

Not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Negative urgency =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Reactive aggression =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 $p < .01$.

ble 1과 같다. 각 변인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t -test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t(124) = -2.67$, $p < .01$, $t(124) = -2.58$, $p < .05$.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그리고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각각 $r = .713$ ($p < .01$), $r = .475$ ($p < .01$), $r = .558$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 간 유의한 상관계수는 최소 .475에서 최대 .713으로 강한 수준에서 매우 강한 수준에 해당하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위와 같이 변인 간의 상관이 강할 경우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지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변인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경우 회귀분석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 간의 공차한계의 범위가 0.922에서 0.986로 0.1보다 컸으며, VIF의 범위는 1.014에서 1.085로 10보다 작았으므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가 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Lee & Park, 2015).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에서 부정 긴급성의 매개효과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 긴급성을 매개로 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PROCESS

Table 3. Bootstrapping Analysis for Indirect Effect

Variable	B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CI	ULCI
Negative urgency	.2179	.0575	.1188	.3463

Note. Negative urgency =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LLCI: Lower level for 95%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for 95% confidence interval.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는 주로 Sobel 검증 혹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활용한다. 하지만 간접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Sobel 검증에서처럼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Z-검증을 실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반면,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면 비대칭적인 신뢰한계들을 제공하기에 간접효과와 표준오차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Seo, 2010; Shrout & Bolger,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간접효과 계수는 .218이었다. 또한 95%의 신뢰구간에서 부정 긴급성에 대해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했을 때, 각각 하한값 .119, 상한값 .346이었다. 하한값과 상한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정 긴급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Seo, 2010). 즉, 부정 긴급성이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매개 모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에서 주의편향의 조절효과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분석 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부정 긴급성과 주의편향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West, Aiken, & Krull, 1996),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 변인을 넣어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정 긴급성과 주의편향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 부정 긴급성과 주의편향 점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ΔR^2 값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주의편향은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Delta R^2 = .029$, $p < .05$.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된 조절효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주의편향의 조건 값(-1SD, Mean, +1SD)

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Aiken & West, 1991;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또한 주의편향의 1SD를 중심으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회귀선을 도출하여 Figure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Aiken & West, 1991;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 사이의 단순회귀선이 모든 조건(주의편향의 평균값, 평균값 1SD)의 95% 신뢰구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Attentional Bi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Reactive Aggression

Step	Predictor	β	R^2	ΔR^2	ΔF
1	Gender	.101	.010	.010	1.270
2	Gender	-.017	.322	.312	28.026***
	Negative urgency (A)	.569***			
	Attentional bias (B)	.100			
3	Gender	-.027	.350	.029	5.342*
	Negative urgency (A)	.598***			
	Attentional bias (B)	.130			
	(A) (B)	.174*			

Note. Negative urgency =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Reactive aggression =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 $p < .05$. *** $p < .001$.

Table 5. Moderation Results for Engagement across Levels of Attentional Bias

Attentional bias	Effect (b)	SE	t	LLCI (b)	ULCI (b)
Mean-1SD	.4438	.1243	3.5696***	.1977	.6899
Mean	.6835	.0872	7.8339***	.5108	.8562
Mean+1SD	.9232	.1459	6.3285***	.6344	1.2120

Note. LLCI (b): Lower level of b for 95% confidence interval
ULCI (b): Upper level of b for 95% confidence interval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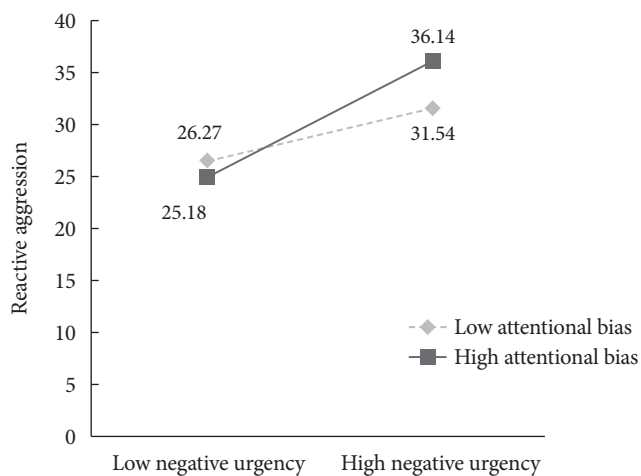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effect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attentional bias.

간 내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조건에서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편향이 유의하게 조절함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주의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확인된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사이에서 부정 긴급성의 매개효과 및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주의편향의 조절효과를 통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변수인 부정 긴급성에 미치는 독립변수 경계선 성격 성향의 영향이 유의하였다, $b = .423$, $t = 10.796$, $p < .001$. 다음으로 부정 긴급성(매개변수)과 주의편향(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반응적 공격성(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b = .007$, $t = 2.014$, $p < .05$. 즉,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의편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b = .576$, $t = 4.646$, $p < .001$.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와 크기를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int(\hat{\theta}/W) = \hat{a}_1(\hat{b}_1 + \hat{b}_3 W) = .739 (.576 + .007 * \text{주의편향})$$

$\hat{\theta}$ 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를 포함하는 벡터 값이며, $\hat{a}_1, \hat{b}_1, \hat{b}_3$ 는 표본회귀계수(sample regression coefficient), W 는 조절

Table 6.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ttentional Bias

	DV: Negative urgency				
	b	SE	t	LLCI (b)	ULCI (b)
Gender	.7390	.7673	.9631	-.7798	2.2578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4231	.0392	10.7963***	.3455	.5006
	DV: Reactive aggression				
	b	SE	t	LLCI (b)	ULCI (b)
Gender	-.4820	1.0271	-4.693	-2.5157	1.5516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0907	.0745	1.2180	-.0568	.2382
Negative urgency (A)	.5760	.1240	4.6462***	.3305	.8215
Attentional bias (B)	.0305	.0171	1.7885	-.0033	.0644
(A) × (B)	.0072	.0036	2.0137*	.0001	.0142

Not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Negative urgency =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Reactive aggression =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 $p < .05$. *** $p < .001$.

Table 7. Moderated Mediation Results for Engagement across Levels of Attentional Bias

Attentional bias	Indirect effects for engagement across levels of moderator			
	Conditional indirect effect (<i>b</i>)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ean -1SD (-29.7569)	.1536	.0550	.0606	.2756
Mean	.2437	.0580	.1383	.3655
Mean +1SD (+29.7569)	.3338	.0829	.1890	.5113

Note. Boot LLCI: Lower level of indirect effect for 95% confidence interval; Boot ULCI: Upper level of indirect effect for 95% confidence interval; Mediating variable: Negative urgency.

변수로, 주의편향이 높아질수록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 긴급성을 매개로 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값과 평균값 1SD 값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실시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편향의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주의편향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절된 매개의 간접효과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SD = .1536, mean = .2437, +1SD = .3338). 즉,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수준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에서 부정 긴급성의 매개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 긴급성을 매개로 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각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Preacher 등(2007)이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 긴급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에서의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앞선 두 결과를 통합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은 부정 긴급성 및 반응적 공격성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사이에도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계선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에게서 충동성 및 공격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APA, 2013; Ross & Babcock, 2009; Taherifard, Abolghasemi, & Hailoo, 2015) 및 충동성과 공격성 간의 정적인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Hecht, & Latzman, 2015; Scott, DiLillo Maldonado, & Watkins, 2015; Settles et al., 2012) 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 상황에서 심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 및 높은 수준의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이 시사된다. 또한 부정 긴급성이 높은 경우 반응적 공격성의 수준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계선 성격 성향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 긴급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 집단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의 심각도와 충동성이 반응적 공격성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Kogan-Goloborodko, Brüggmann, Repple, Habel, & Clemens, 2016) 결과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부정 긴급성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부정 긴급성은 반응적 공격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집단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 성향이 강한 비임상 집단에서도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집단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비임상 집단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여지가 있음이 시사된다.

셋째,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수준이 높을 때는 부정 긴급성이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수준이 낮을 때는 부정 긴급성의 증가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의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협적 자극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사람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정 긴급성이 발현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로 인해 반응적 공격성 또한 높아지지만, 위협적 자극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일 경우 부정 긴급성의 정도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작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격성의 상상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위협 민감성을 언급한 연구자들(Blair, 2012; Mancke, Herpertz, & Bertsch, 2015)의 주장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즉, 지각된 위협은 분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 자극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경향성은 분노를 경험하게 하며(Blair, 2012), 이렇게 경험된 분노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응적 공격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개입을 통하여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충동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경계선 성격성향이 부정 긴급성을 매개로 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정도가 심할수록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 긴급성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높은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 긴급성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며, 위협적 자극에 대해 주의를 많이 기울일수록 높은 부정 긴급성 수준에 의한 반응적 공격성의 증가폭이 커지는 반면, 위협적 자극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일 경우에는 경계선 성격 성향이 부정 긴급성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공격성이 높은 집단 중에서도 충동성 및 공격성이 모두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경계선 성격 성향을 가진 집단에게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수정하는 개입을 활용함으로써 공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위협적 단어자극을 이용한 스트룹 과제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주의편향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들(Brugman et al., 2015; Chan, Raine, & Lee, 2010; Smith & Waterman, 2004)과는 달리 얼굴자극을 사용한 탐침탐사과제를 이용하여 주의편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군에서 대인관계 관련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비임상군의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Hines, 2008; Newhill, Eack, & Mulvey, 2009; Stepp, Smith, Morse, Hallquist, & Pilkonis, 2012; Whisman & Schonbrun, 2009)들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불안장애 임상 및 비임상 집단, 알코올 의존장애 임상집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의편향 수정 프로그램(attentional bias modification training)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바(Hakamata et al., 2010; Schoenmakers et al., 2010), 공격성이 두드러지는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비임상 집단에 대한 주의편향 수정 프로그램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예방적 함의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성격장애의 경우 자아동질적인 특성이 강

하여 성격장애 자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수적인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치료 혹은 상담 장면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현재 임상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보일 수 있는 공격성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Widiger & Trull, 2007)을 고려할 때,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집단 역시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집단과 질적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집단에 대해서도 주의편향 수정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 가능성을 제시하였기에 치료적 함의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론적 그리고 임상적 함의를 가지지만 제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 소재의 A대학교 학부생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집단 및 임상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재검증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참가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을 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설문에 응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보다 과장하여 응답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충동성 및 공격성을 행동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사람이 실제로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충동적인 특성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외에 충동성 및 공격성을 행동적으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참가자에게 실제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행동적인 공격성을 측정하는 등의 실험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의편향을 측정할 때, 위협표정과 중립표정 자극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사전 표정평정을 통해 위협표정과 중립표정 간 위협정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선행 연구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집단에서 부정적인 표정 자극에 대해서만 주의편향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정서 표정 자극에 대해서는 주의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나(von Ceumern-Lindenstjerna et al., 2010), 위협표정과 중립표정이 정서적 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위협적 표정자

극과 정서적 강도가 유사한 긍정적 표정자극을 주의편향 측정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주의편향이 실제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나타난 것인지 혹은 모든 정서적 자극에 대해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 Amir, N., & Foa, E. (2001). Cognitive biases in social phobia. In S. G. Hoffman, & P. M. DiBartolo (Eds.),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 phobia: Multiple perspectives* (pp. 25-267). Boston, MA: Allyn and Bacon.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lair, R. J. R. (2012). Considering anger from a cognitive neuroscience perspectiv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3, 65-74.
- Brugman, S., Lobbestael, J., Arntz, A., Cima, M., Schuhmann, T., Dambacher, F., & Sack, A. T. (2015). Identifying cognitive predictor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dentifying cognitive predictor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1, 51-64.
- Chan, S. C., Raine, A., & Lee, T. M. (2010). Attentional bias towards negative affect stimuli and reactive aggression in male batterers. *Psychiatry Research*, 176, 246-249.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 Crapanzano, A. M., Frick, P. J., & Terranova, A. M. (2010). Patterns of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 school-based sample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433-445.
- Cyder, M. A., Smith, G. T., Spillane, N. S., Fischer, S., Annus, A. M., & Peterson, C. (2007). Integration of impulsivity and positive mood to predict risky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positive urgency. *Psychological Assessment*, 19, 107-118.
- de Barros, D. M., & de Pádua Serafim, A. (2008).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disorder and violent behavior pattern.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79, 19-22.
- Depue, R. A., & Collins, P. F. (1999). Neurobiology of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Dopamine, facilitation of incentive motivation, and extravers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 491-517.
- DeShong, H. L., & Kurtz, J. E. (2013). Four factors of impulsivity differentiate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 144-156.
- Dickman, S. J.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5-102.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mes, G., Czieschnek, D., Weidler, F., Berger, C., Fast, K., & Herpertz, S. C. (2008). Recognition of facial affect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 135-147.
- Fonseca-Pedrero, E., Paino, M., Lemos-Giraldez, S., Sierra-Baigrie, S., González, M. P. G., Bobes, J., & Munniz, J. (2011).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 542-556.
- Fontenot, L. G., Jackson, J. L., & Terry, D. P. (2015). Depressive and anxious symptomatolog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severity and attentional bias on the modified Stroop task.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24, 753-772.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 634-660.
- Gardner, K. J., Archer, J., & Jackson, S. (2012). Does maladaptive copi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8, 403-413.
- Gardner, K. J., & Qualter, P. (2009). Emotional intelligence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94-98.
- Hakamata, Y., Lissek, S., Bar-Haim, Y., Britton, J. C., Fox, N. A., Leibenluft, E., ... Pine, D. S. (2010). Attention bias modification treatment: A meta-analysi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novel treatment for anxiety. *Biological Psychiatry*, 68, 982-990.
- Hayes, A. F. (2014).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2.11) [Software]. Available from <http://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 Hecht, L. K., & Latzman, R. D. (2015). Revealing the nuanced associations between facets of trait impulsivity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92-197.
- Hines, D. A. (2008).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intimate partner aggression: An international multisite, cross-gender 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 290-302.
- Hong, S. H., & Kim, Y. H. (1998). A validation study of the border-

- line personality disorder scal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 259-271.
- Hur, Y. J., & Rhee, M. K. (2015).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disorder traits on depression: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747-767.
- Institute of Medicine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violence: Workshop summar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Kim, K. H. (2000). Anger-in and high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 181-192.
- Kogan-Goloborodko, O., Brüggmann, E., Repple, J., Habel, U., & Clemens, B. (2016). Experimentally assessed reactive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LoS One*, 11, e0166737.
- Korfine, L., & Hooley, J. (2009). Detecting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he community: An ascertainment strategy and comparison with a hospital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 62-75.
- Lacey, K. K., McPherson, M. D., Samuel, P. S., Sears, K. P., & Head, D. (2013).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in different ethnic grou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 359-385.
- Lee, E. J., & Park, S. H. (2015). The effects of rumination and thought suppression on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neuroticism.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5, 501-517.
- Lee, J. H.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pathy, empathy,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T. H., Lee, K. Y., Lee, K., Choi, J. S., & Kim, H. T. (2006). *Korea University Facial Expression Collection: KUFEC* [Photographic slides]. Seoul, The Republic of Korea: Laboratory of Behavioral Neuroscience,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 Lim, S. Y., & Lee, Y. H. (2014). A Korean validation of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51-71.
- MacLeod, C., & Mathews, A. (1988). Anxiety and the allocation of attention to threat.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0, 653-670.
- MacLeod, C., Mathews, A., & Tata, P. (1986). Attentional bias in emotional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5-20.
- Mancke, F., Herpertz, S. C., & Bertsch, K. (2015).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multidimensional model.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6, 278-291.
- McCloskey, M. S., New, A. S., Siever, L. J., Goodman, M., Koenigsberg, H. W., Flory, J. D., & Coccaro, E. F. (2009). Evaluation of behavioral impulsivity and aggression tasks as endophenotypes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 1036-1048.
- Miller, J., Flory, K., Lynam, D., & Leukefeld, C. (2003). A test of the four factor model of impulsivity – related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403-1418.
- Mogg, K., Holmes, A., Garner, M., & Bradley, B. (2008). Effects of threat cues on attentional shifting, disengagement and response slowing in anxious individual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656-667.
- Mogg, K., Philippot, P., & Bradley, B. P. (2004). Selective attention to angry faces in clinical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160-165.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usa, C., Lépine, J. P., Clark, D. M., Mansell, W., & Ehlers, A. (2003). Selective attention in social phobia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 concurrent depres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043-1054.
- New, A. S., Hazlett, E. A., Newmark, R. E., Zhang, J., Triebwasser, J., Meyerson, D., ... Koenigsberg, H. W. (2009). Laboratory induced aggression: A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tudy of aggressive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66, 1107-1114.
- Newhill, C. E., Eack, S. M., & Mulvey, E. P. (2009). Violent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 541-554.
- Oh, I. S. (2010).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to bullying: A focus on empathy and aggress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 45-63.
- Oh, I. S., & Lim, Y. G. (2016). Differences in problem-solving styles and bullying experience in terms of the level of agg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9, 33-46.
- Paris, J. (1997).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Two separate diagnoses or two aspects of the same psychopathology? *Comprehensive Psychiatry*, 38, 237-242.
- Park, M. H., & Kim, W. I. (2014).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 475-501.
- Pineles, S. L., & Mineka, S. (2005). Attentional biases to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of potential threat in social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314-318.
- Posner, M. I., Cohen, Y., & Rafal, R. D. (1982). Neural systems control of spatial orient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98, 187-198.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Quay, H. C., & Werry, J. S. (1986).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3rd ed.). New York: Wiley.
-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 Reynolds, C.,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32*, 159-171.
- Ross, J. M., & Babcock, J. C. (2009). Proactive and reactive violence among intimate partner violent men diagnosed with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 607-617.
- Schoenmakers, T. M., de Bruin, M., Lux, I. F., Goertz, A. G., Van Kerkhof, D. H., & Wiers, R. W. (2010). Clinical effectiveness of attentional bias modification training in abstinent alcoholic patient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09*, 30-36.
- Scott, J. P., DiLillo, D., Maldonado, R. C., & Watkins, L. E. (2015). Negative urgenc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se: Associations with displace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1*, 502-512.
- Seefeldt, W., Kramer, M., Tuschen-Caffier, B., & Heinrichs, N. (2014). Hypervigilance and avoidance in visual attention in children with social phobia.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5*, 105-112.
- Seo, S. G. (2012).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ger-coping behaviors,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849-867.
- Seo, Y. S.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 1147-1168.
- Settles, R. E., Fischer, S., Cyders, M. A., Combs, J. L., Gunn, R. L., & Smith, G. T. (2012). Negative urgency: A personality predictor of externalizing behavior characterized by neuroticism, low conscientiousness, and disagreeablen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 160-172.
- Shin, M. Y., & Hyun, M. H. (2007). Time-course of attentional bias for threatening stimulus in anxiety-prone individual. *Korea Journal of Psychology, 26*, 207-22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mith, P., & Waterman, M. (2004). Role of experience in processing bias for aggressive words in forensic and non-forensic populations. *Aggressive Behavior, 30*, 105-122.
- Soloff, P. H., Meltzer, C. C., Becker, C., Greer, P. J., Kelly, T. M., & Constantine, D. (2003). Impulsivity and prefrontal hypometabolism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Neuroimaging, 123*, 153-163.
- Staugaard, S. R. (2010). Threatening faces and social anxiety: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669-690.
- Stepp, S. D., Smith, T. D., Morse, J. Q., Hallquist, M. N., & Pilkonis, P. A. (2012). Prospective associations amo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terpersonal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 103-124.
- Sung, S. Y., Choi, T. Y., & Lee, J. H. (2012). Association study of the impulsiveness and aggressiveness in adolescent prisoners with dopamine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8*, 63-74.
- Taherifard, M., Abolghasemi, A., & Hajloo, N. (2015).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and sleep quality among patients with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Archives of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17*, 105-112.
- von Ceumern-Lindenstjerna, I., Brunner, R., Parzer, P., Mundt, C., Fiedler, P., & Resch, F. (2010). Initial orienting to emotional faces in female adolesc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ology, 43*, 79-87.
- Wagner, A. W., & Linehan, M. M. (1999).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bility among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for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 329-344.
- West, S. G., Aiken, L. S., & Krull, J. L. (1996). Experimental personality designs: Analyzing categorical by continuous variable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4*, 1-48.
- Whisman, M. A., & Schonbrun, Y. C. (2009). Social consequence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 a population-based survey: Marital distress, marital violence, an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 410-415.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669-689.
- Widiger, T. A., & Trull, T. J. (2007). Plate tectonic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Shifting to a dimens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62*, 71-83.
- Yeo, L. S., Ang, R. P., Loh, S., Fu, K. J., & Karre, J. K. (2011). The role of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of a Singaporean sample of boy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5*, 313-330.
- Yoon, H. Y., & Kwon, J. H. (2013). The efficacy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social anxiety disorder: Changes in the attentional bias and the implicit self-esteem.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3*, 211-234.

국문초록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주의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성원 · 전선영 · 박수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정 긴급성이 매개하며,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 긴급성의 영향을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소재 A 대학교 학부생 126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반응적-주도적 공격성 질문지,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얼굴 표정 자극을 이용한 탐침 탐사과제를 통해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측정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 및 반응적 공격성,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 긴급성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정 긴급성이 매개하며,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경계선 성격 성향, 반응적 공격성, 부정 긴급성, 주의편향